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9월 27일(금)
... (윤력 8월 29일) ...

Пятница
27 сентября 2019г.
№ 38(11685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제 23차 <사할린 석유, 가스> 국제 컨퍼런스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었다. 포럼 개막식은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사할린정부 제공)

단신

민족관계 전문가 사할린 방문

지난 24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사할린 섬>체호브 책박물관에서 <러시아 연방 행정지역에서 국가민족 정책 구현>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다양한 민족단체 대표, 사회활동가, 시 및 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러시아 대통령 직속 민족간 관계위원회 간부회 위원이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민족학 및 인류학 연구소 부소장인 블라디미르 조린 정치학 박사가 특강했다.

그는 "사회단체의 활동은 민족 행사 등으로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 일상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간 소통과 상호지원을 장려하는 것이다."라며 이날 흥미를 끄는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날 조린 박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를 방문해 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의 만남도 있었다.

주한인협회, 10월 6일 미니축구대회 개최

10월 6일(일) 11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주최로 한인 미니축구대회가 열린다. 이에 모든 지방 한인회 팀들이 적극 참가를 추구하고, 신청지원은 9월 30일 까지 받는다.

친애하는 여러분!

10월 1일은 국제 노인의 날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아 고령세대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에 사할린주가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었고, 주택들,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여러 시설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돌보는 것은 지역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주에서는 사할린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금의 규모도 인상되었고, 무료 휴양 및 요양 치료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차고 유익한 휴식과 다른 사회적 지원 대책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도우며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고령세대의 모든 분들께 강건함과 장수와 온정과 행복과 기쁨과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를 기원하며 항상 여러분 곁에 사랑과 배려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석유 · 가스> 컨퍼런스 개최

제 23차 <사할린 석유, 가스> 국제 컨퍼런스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었다. 컨퍼런스에는 20개국의 석유가스산업의 전문가들 600여 명이 연합해 모였다.

포럼 개막식은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정부 수상이 올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이름으로 주최 측, 참가자들과 내빈들을 환영하고 "이 포럼은 러시아 석유가스 분야 발전의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가장 권위 있고 필요한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 지역에 경제 및 사회적 기획의 실시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다년간 축적된 협력 활동의 경험이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새롭고 전망적인 사업의 실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는 흥미로운 토론과 유익한 만남과 사할린지역에서 새롭고 긍정적인 추억을 얻으시길 바란다." 라는 주지사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오래전부터 사할린에서 열리는 국제 포럼은 비즈니스 일정상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다. 바로 여기에서 석유가스

종합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의 핵심 동향에 목표를 세우며, 전 세계 대형 회사들과 사할린주 대표자들이 사업적 긴밀한 교섭을 구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할린 석유가스> 컨퍼런스는 사할린 주지사의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다. 행사에는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 지역 기관 및 주요 부처의 대표자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 중 정기적으로 <가스프롬>, <로스넛치>, <사할린 에너지>, <엑손 모빌>, <셸>을 비롯한 여러 선도 산업회사의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의 실무 프로그램은 항상 러시아와 극동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석유가스산업이 현재 당면한 주요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들이 정보기술과 디지털 서비스, 세계 시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력에 있어 압축천가스 역할의 확대에 특별히 관심을 집중하였다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컨퍼런스는 본래 서구산업의 유치를 위해 런던에서 개최되었었지만 이제 12년간의 국제 포럼은 사할린으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제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추도 및 유골 환송식 10월 5일 진행 예정

올해 9월 20일경에 예정된 제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추도 및 유골 환송식은 여러 사정으로 10월 초로 미뤄졌다. 한국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한인 유해 14위를 봉환하여, 10. 7.(화)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한다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33명으로 이루어진 한국대표단(유족 16명, 행안부 관계자, 행사 진행 맡은 오렌지오션 직원 등)이 10월 1일 사할린에 내도할 예정이다.

유해는 사할린 주내 (체호브, 네벨스크, 홀스크,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등지)에서 묘지를 개장해 수습·화장하고 5일(토) 16시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러시아 정부 관계자 및 사할린 한인협회 대표, 한인 동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도·환송식을 거행한다.

봉환된 유해는 충남 천안시 소재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추도식을 거행한 후 봉안당에 안치할 계획이다.

사할린의 한인 피해자는 대일항쟁기(1938년~1945년)에 강제로 끌려가 탄광, 토목공사,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광복 후에는 일본 정부의 방치와 미 수교된 구 소련과의 관계로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귀환길이 막혀 고국땅을 그리다 생을 마감해야 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부터 봉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할린 한인묘지 발굴과 봉환을 위해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6회에 걸쳐('13년~'18년) 71위(배우자 포함 80위)를 봉환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강제동원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해외 희생자 유해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사 기자)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한인 강제동원 80주년 기념 세미나 진행

"자식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고향"...

이산가족의 아픔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2세들의 영주귀국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지난 9.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러시아의 양 수도에서 사할린 한인 역사 8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러시아 지역 간 사회단체인 사할린 한인협회의 주관,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한국의 인하대학교 다문화연구소의 박미숙 교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이자 인천고려인문화원 원장인 박봉수 교육학 박사, 사할린 향토 박물관의 수석 연구원 진 올리아 역사학 준박사, 그리고 사할린 정의복권재단 지도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한인회 김복곤 부회장 등 4명의 사할린 한인 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또한 한국 공관의 김용조 영사를 비롯하여 전 러시아 고려인연합회, 모스크바한인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러시아 고려인'신문과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인들이 발행하는 여러 현지 신문 등, 마스크 대표들,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의 김용태 총영사를 비롯해 고려민족문화자치회,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와 현지 신문사 대표들과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사할린 동포 및 고려인 동포들이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사할린 한인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윗세대들이 겪어온 한

많은 인생과 고생 끝에 드디어 그리던 영주귀국의 길이 열려 고국에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어째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고국에서의 생활적응이 순탄치만은 않은가?...

세미나에서는 사할린 동포들의 생애담을 통해 사할린 한인 문제와 사할린 한인의 눈으로 보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각, 자녀의 '귀환'에 대한 한국 주민들의 반응 등 몇 가지 사항을 적어보기로 한다. 반세기가 넘게 이국땅에서 살다가 낙엽이 되어 고향땅으로 돌아온 그들이었던만 사람들과 소통도 잘 안 되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한국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프

로그램도 없어 이웃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지내야 하고, 또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아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아 서운할 때가 많다는 분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늘그막에 이르러서 또 한 차례 이산가족 아픔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만약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 "자식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 고향."이라고... 그 이유는? 자식과 떨어지기 싫어서, 또는 한 형제 간이라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아버지 묘도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뭐하러 내 새끼들 두고 한국에 가겠는가? 너라도 우리 고향에 가서 여기보다 좋게 살아라."하고

동생과 이별하게 된 슬픈 사연들... 같은 핏줄을 타고난 동포들이건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국에서의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 생부모와 떨어져 사할린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 자식들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를 바 없고 사정은 더욱 안타깝다. "한국에 그렇게 가신다니 아버지께서 자분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압니까? 다만 죽어서라도 뼈를 자기 아버지 곁에 묻겠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한국을 고향, 고향 하다 돌아가셔서..." 내 남은 소망은 ... 지금도 아들이 '러시아에서 같이 살아.'고 해요. 아들의 말은 고맙지만 성할 때는 가서 살 수 있어도 아프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국은 시설도 좋고 요양소도 많고 나는 한국에서 살려주세요." 남보다 못한 한 집 식구... "복지관에 아픈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들을 자주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와서 며칠을 못 있는 거예요. 같이 좀 자고,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부부랑 같이 쓰면 편찮은데 남이랑 같이 살면 내 식구가 와도 잘 수가 없어서 그 옆에 다른 할머니랑 있죠. 시설을 조금만 늘려주어도...", "엄마가 아파서 딸이 왔는데 어머니 간호는 낮에만 하고 밤에는 여관에 있는 거예요. 여관에 있으면 돈도 들어야 하잖아요. 사할린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매일 하죠." 2차 이산가족의 아픔을 하루빨리 털어주기 위해서라도 1세 자손들의 영주귀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끝으로 한국에서 초빙된 강사들의 소감 몇 마디...

"사할린 한인 역사 8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동안 학술 세미나와 다르게 무엇보다도 러시아 지역 간 사회단체인 '사할린 한인협회'가 주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할린이 아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뿐만 아니라 고려인,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등이 모두 모여 사할린 동포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였다는 것도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위해 애쓰신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박봉수)

"사할린 동포들의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속력있게 공동체를 운영하고 서로 협심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주관하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한인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사할린 한인회가 더 크게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박미숙)

(러시아지역간 사회단체 '사할린한인협회'(모스크바 소재) 부회장 김수만)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연금 수급자들, 무료 사격과 수영 강습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연금 수급자들이 사격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장수'기획에 3개 체육학교(수영, 구기종목, 올림픽 대비 그레코로만 레슬링)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할린 주민 복지카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학교를 방문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여기서 담당 전문가들이 수업 절차와 시간표를 알려 주고 모든 강습은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진행된다.

"사할린 주민 복지카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사할린 장수'기획에 참여하는 스포츠 시설을 한 달에 12회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년체육관광청 엘레나 자야즈킨 청장이 밝혔다.

자세한 정보와 시간표, 강습 종목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 (<http://sport.yuzhno-sak.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오락과 함께 '복지 카드' 소지자들에게는 문화 기관 방문, 소매 상점과 약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월 1일부터 '사할린 장수'기획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로 하여금 무료로 문화, 스포츠, 보건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획의 참가 연령은 65세로 '복지 카드'는 사할린주 주민 사회봉사센터(주소: 후르카예와 거리 80)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 시 여권과 개인 의료보험 번호를 제시하고, 스포츠 강습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체육 활동에 제약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Пенсионе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стрелять и поплава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теперь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стрелковый тир и бассейн. В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участвуют сразу три спортивные школы — по плаванию, игр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Их могут посещать пенсионеры в возрасте от 65 лет, имеющие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Для посещ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администраторам учреждений. Специалисты подскажут расписание и условия занятий. Все тренировк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 Каждый обладатель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сможет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посещать 12 раз в месяц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участвующие в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порту и туризм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лена Завязкина.

С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 расписании и видах заняти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Помимо спортивного досуга "Социальная карта" открывает перед островитянами и друг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щ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дисконт в точках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и аптечных сетях.

С 1 апреля на островах запустили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Он позволяет жителям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культур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 пенсионеры в возрасте от 65 лет. Получить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можно в отделении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оложенном по адресу: ул. Пуркаева, 80. При себе нужно иметь паспорт, СНИЛС, а тем, кто жела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 справку об отсутствии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к занятиям физкультуро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СО.

사할린 <러시아의 상징. 스포츠적 업적> 올림픽아드에 합류

<러시아의 상징. 스포츠적 업적>전국 올림픽아드의 사할린 지역대회가 시작되었다. 올림픽아드의 주요 목적은 러시아의 스포츠 유산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에 지역에 주 아동도서관이 주관하게 되는데 지역 단계는 연령별 8세-10세와 11세-14세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등록은 10월 5일까지 접수하며 올림픽아드 문제 출제 시 경연을 위해 특별히 러시아 국립아동도서관의 전문가들이 구성된 추천 문헌서 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경연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우수 문제들은 2019년 11월 21일에 진행될 <러시아의 상징. 스포츠적 업적>학생 부문 전국 올림픽아드를 위한 기초가 되고 8세-14세 학생들은 스포츠에 관한 10개 질문에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지역 단계 학생들의 참가 신청은 11월 20일까지 아동 도서관, 학교, 스포츠 기관이나 직접 온라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지역 단계 우승자에게는 전국 올림픽아드 조직위원회가 개별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8(4242) 23-27-90)로 문의.

이 활동에 경연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우수함을 인정받은 학생 명단은 11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олимпиаде "Символы России. Спортивные достиж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Символы России. Спортивные достижения".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Олимпиады является популяризация спортивного наследия страны.

Ее координатором в регионе выступила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проводится в дву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от 8 до 10 лет и от 11 до 14 лет.

Прием работ — до 5 октября. При работе над конкурсными вопросами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писком рекоменд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торый состав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конкурса. Лучши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выберут члены жюри конкурса, станут основой дл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Символы России. Спортивные достижения",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21 ноября 2019 года.

(8면에 계속)

국립국어원 대표단, 예비교원들의 한국어교육 실태 파악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부터 한국 국립국어원이 사할린에 파견한 한국어 예비교원들이 실습의 틀에서 현지 교육기관들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4일(화) 4박5일 일정으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신호석 과장과 이슬비 학예연구사(사할린 및 일본 사업 책임자)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들은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의 예비교원들의 수업에 참관하고, 코르사코브의 한국어 채택 학교 및 한글 학교, 홈스쿨 한글학교를 찾았다.

또한 사할린국립대에서 예비교원들의 모의수업에도 참관하고 사할린국립대 니콜라이 바르민 총장,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과 만났다.

신 과장에 따르면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이 현재 국어원 공동 연구원으로 활동하는데 2월 말에 교육원장의 임기가 끝나 예비교원 국외 파견 실습사업이 사할린에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 현 원장과 후임 원장의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사할린에서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 사업을 할 것인가는 후임 원장 의견에 많이 달려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파견 실습사업이 3년차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국어원의 위탁을 받아 사할린과 일본에서는 경희대학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는 국민대학교가 실시하고 있다. 신호석 과장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한 해에 경력 교원을 포함해서 예비교원 총 100명을 뽑는다고 한다. 처음엔 지원자가 별로 없었지만 갈수록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원자가 많아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3:1정도 지원자가 들어왔으니 양호한 편이라 한다.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고 원어민 수업을 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원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예비교원들이 와서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비교원들이 좋은 취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이수치는 30% (약 60명 정도 한국 내 언어교육원, 해외의 문화원, 한글교육 기관 그런 곳에 취직)로 아직 낮은 편이라고 주최 측에서 보고 있다.

이슬비 학예연구사는 국립국어원의 또 다른 사업도 소개했다. 2017년부터 국어원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교재, 한국어 교재를 통합을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2018년에 처음 책이 나왔고, 2019년 올해도 만들고 있는데, 사할린 같은 경우에도 재외 동포 유아용 한국어 학습 교재를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일본어와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추가로 만들 계획이라며 내년 2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용은 2019년 2월에 출판이 되었고,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습자용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주 교재라고 할 수 있는 학습지 자체는 6권이다. 전체 270개의 많은 활동을 담고 있어서 한글학교에서 활용하기 좋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국어원 팀은 28일(토) 귀국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주와 미츠비시 주식회사의 지속적 협력 협약

알렉세이 벨릭 사할린 부주지사가 일본 미츠비시 주식회사의 미국, 유럽 및 중동 천연가스 사업부 총 책임자 미야모토 나오토와 만남을 가졌다. 미츠비시 기업은 <사할린2> 대규모 석유 및 가스 기획의 투자자 중 하나이다.

"올해 <사할린 에너지> 컨소시엄 (: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2개 이상의 회사 또는 정부, 단체의 협동체)이 25주년을 맞는다.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현재 <사할린 2> 기획은 주의 석유가스 생산에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사할린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압축천연가스가 주요 수출품목이 되었다."고 알렉세이 벨릭 부지사 대행(주정부 수상)이 언급했다.

미야모토 나오토는 공동 협력사업에 대해 사할린주 정부에 감사를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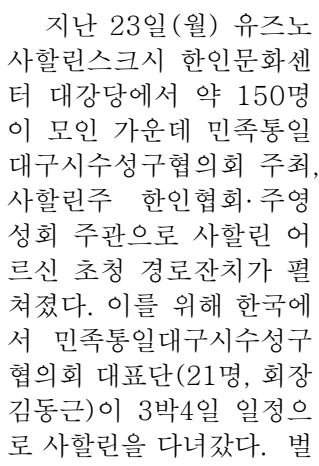
했다. 일본으로서는 사할린과 석유 및 가스의 중단없는 공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사할린 2> 기획의 지속과 확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도시 외곽지역에 제 3의 압축천연가스 공장 라인 건설에 관하여 우리 기업과 사할린주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사업에 결실이 있길 바란다."고 미야모토 나오토는 표명했다. 사할린주의 지도부와 미츠비시 기업의 대표들은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국제 컨퍼런스 별도 분야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2018년에 사할린 지역과 일본과의 교역량은 50억 달러 이상에 달했고 2019년 상반기 교역량의 지표는 25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할린주 전체 대외교역량의 약 30%에 해당된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대구 수성구 민족통일협의회,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베풀다



지난 23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약 150명이 모인 가운데 민족통일대구시수성구협의회 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주영성회 주관으로 사할린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펼쳐졌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민족통일대구시수성구협의회 대표단(21명, 회장 김동근)이 3박4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다녀갔다. 벌써 10여 년간 해마다 사할린을 다녀가는 민족통일대구청소년협의회 하대군 회장이 대표단을 수행했다.

행사 사회는 주 한인 여성회 김웨철 회장이 맡았다.

이날 공식 석상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민족통일대구시수성구협의회 김동근 회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대구시 노인회 이장기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박순옥 회장은 대구에서 오신 손님들을 환영하고 벌써 오랫동안 대구시와 청소년협회가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힘써 주셔서 사할린 한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사를 드린다고 사할린 한인과 대구시가 서로 보듬으며 우리 한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길 간곡히 바란다

김동근 민족통일대구시수성구협의회 회장은 "강제 징용 되신 분들의 아픔을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피부로 한 번 느끼고자 우리 회원들과 함께 사할린을 방문해서 직접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할린 방문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환 원장은 행사장을 찾아온 어르신들을 따뜻이 환영하고 대구시 대표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장기 대구시 노인회 회장도 사할린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공연 프로그램은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 팀(단장 송 알리크)의 멋진 난타 공연, 한인문화센터의 <아

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의 우아한 <아리랑>과 부채춤, 최 율리아의 독창 <사할린>(주현미), 아마추어 가수인 강상만·김 마리아·김 웨철 무대와 강팔용 동포 가수의 열띤 공연으로 이어졌다. 특별 선물로 이날 <루스키 테렘>러시아 민속 예술단(단장 안드레이 벨리첵코)의 신나는 무대가 펼쳐졌다. 모든 공연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진행됐다.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구 손님들과 사할린 동포들이 다양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노래와 춤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인문기술대학, 새고려신문과 민족통일대구청소년협의회가 후원했다고 전해졌다.

대구시대표단은 24일 귀국했다. 사할린 방문차 이들은 필수 코스인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을 찾고 새고려신문사를 방문해 현지 연혁과 현황을 알아보고 지난 22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주최한 허남영 시인 70주년 기념 문학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김동근 회장은 사할린을 떠나기 직전에 "3박4일 사할린 방문을 하면서 사할린 동포들의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강제 징용으로 고초를 겪으신 현장을 가보고 가슴 아픈 역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구로 가지만 두 번 다시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사할린 동포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가슴 아픈 사연을 좀더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배순신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Чусок — 2019 в Москве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Чусок-2019" прошел с 14 по 15 сентября в парке искусств "Музеон"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ткрылась первая в Москв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ярмарка "Содружество культур – содружество народов". На сцене состоялся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фотовыставка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экспозиция марок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дегустации представили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рошли дефиле-показ одежды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мотивами и К-поп баттл.

Также на фестивале заверши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втомобильная корей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Зов предков-2019". Участников автопробега торжественно встретили в Москве в парке искусств «Музеон» на ежег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За 2,5 месяца свыше 40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проехали 30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и побывали в шести странах. В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Москвы отправились девять автомобилей, десятая машина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в Ташкент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вестные блогеры и журналисты из России, Кореи, Герман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побывали в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ах.

Участники автопробег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Элисты, Нур-Султана, Улан-Батора, Пекина, Харбина, Сеула, а также посетили дворец-гробницу Гур-Эмир, самую большую мечеть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Хазрет-Султан, буддийский монастырь Гандантэгченлин, оперный театр Харбина, Сеульский музей искусства и озеро Байкал.

Автомобилисты о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в гостиницах и жил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в палатках в Астрахани, Горном Алтае, Монголии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автомобильной экспедиции работали передвижные фотовыставки.

Напомним, экспедиция стартовала 9 июля в столичном парке «Зарядье».

ИА РУСКОР

Фото: Алена Скворцова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е 21 сентября открылся семинар «К 80-летию начала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с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Сахалин».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являетс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сторики-корееведы,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Москве представили доклады:

Юлия Дин,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згляд с Сахалина (1945-2019 гг.);

Пак Мисук (PARK Misuk), проф. НИ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слияния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ха (НИИ МКС УИ) - «Значение иммиграции и оседлости (ПМЖ) в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Пак Бон Су (PARK Bong Su), доктор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иректор НИИ "Диаспора",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корё-ин г.Инчхона (КЦК) - «История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J, репатрировавшего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Ким Бок Кон,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редседатель Фонд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литика Японии. Вместо юридическ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 половинчатое решен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овали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Ким Дон Джо, члены москов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толицы. 23 сентября аналогичный семинар состоялс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А РУСКОР

Фото Георгия Кима

На Сахалине побы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их туроперат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побывала делегац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елью которой была оценка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 группы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корейских туроператоров. Поездка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успешным переговорам, начало которым было положено в начале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в Сеуле — на крупнейшей в Ази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е KOTFA 2019. Именно тогда стенд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влёк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форума, 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бизнеса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показали реальн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дальнейших переговорах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ибыв на Сахалин, гост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воими глазами увидели и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ли потенциально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Они побывали в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х музеях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и посетили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местной кухней и отведали морские деликатесы на природе, побывали на оленьей ферме и провели время на озере Буссе.

Состоялась бизнес-встреча с местными туроператорами, где сахалин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обменялись опытом, рассмотрели варианты проду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дальнейш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Олег Геннадьевич Романов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презентации рассказал о туристическом потенциале региона и наи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локациях.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танет подготовка масштабной кампании по продвижен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туристской дестинаци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КНДР выпустила памятную монету с Ким Чен Ыном и Путиным

В КНДР вышла памятная монета в честь встреч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о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конце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Монета имеет номинал 1 вону, но существен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обычных" аналогов. Судя по внешнему виду и оформлению, монета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и нумизматов. Она выполнена из латуни и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ая. Ее диаметр составляет 35 мм, толщина около 2 мм.

На аверсе (условно главная часть монеты) размещено изображени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ые пожимают друг другу руки на фо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флагов двух стран. Над лидерам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писано "Переговоры Ким Чен Ына 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нижней части эта сторона монеты украшена пятью цветами.

На реверсе (обратная сторона монеты) изображен герб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указан номинал – 1 вона, год выпуска –

2019. Над гербом есть надпись на корейском – "Сувенир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метим, что схожие по стилю монеты КНДР выпустила в честь и других встреч Ким Чен Ына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ом и главой КНДР Си Цзиньпином. Вместе с тем,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монеты КНДР в честь двух саммитов Ким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пока не появлялись.

Напомним, что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бывал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поезде он проследовал до Владивостока, где и прошли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изита. Там же состоялась и первая лична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м России и КНДР.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Ын обсудили пути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и пути укрепл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Нью-Йорке состоялся саммит РК и США

23 сентября в Нью-Йорке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оюза РК и СШ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утся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КНДР и США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третьему двустороннему саммиту.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оведение встречи Ким Чен Ы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станет переломным моментом 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который даст начало изменениям в вопрос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н также высоко оценил лидерские качеств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ли развит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продолжение диалога Пхеньяна и Вашингтона. Мун Чжэ Ин также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союза РК и США, указав на успешное завершение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ересмотру условий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ФТА и наращив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США. Между тем,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Дональд Трамп,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третьей дву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и с Ким Чен Ыном, предложил продолжить наблюдение за развитием ситуации, указав, что США поддерживают очень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а он сам в отлич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совета СК Ким Чен Ыном. Трамп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расширение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освободили ранее удерживавшихся американцев и отправили в США останки военных, погибших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добные мер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Упомянув о первой встрече с Ким Чен Ыном, Трамп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если бы он не стал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то вероятно США были бы в состоянии войны с СК. Он сказал, что время покажет - удастся ли сторонам достич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или нет.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омимо этого,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не считае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запуски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серьезной проблемой. Прошедшая в Нью-Йорке встреча Мун Чжэ И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стала девятой по счету. Последний раз стороны встречались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Мун Чжэ И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енсеком ООН Антониу Гутерришем

23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находящийся с визитом в Нью-Йорке, провёл встречу с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ООН Антониу Гутерришем, обменявш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вопросам 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ун Чжэ 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Гутерриша за поддержку усилий Сеула в вопросе налаживания мира, призвав к продолжению роли ООН в данном процессе. Президент заявил, что РК работает над оказанием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готово увеличить масштабы поддержки по ходу реализаци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Антониу Гутерриш,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ыразил глубок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К, а также за усилия и роль Мун Чжэ Ина в налаживании диалога СК и США,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 также в оказани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Помимо этого, он призвал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явить более активную позицию в сокращении объёмов выбросов углерода за счёт перехода на возобновляемые источники энергии и других действий. Мун Чжэ Ин ответил, что меры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уже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К примут особые меры по сохранению конфуцианских академий Совон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девять конфуцианских академий Совон периода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инять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особенностей каждой из академий и обеспечения более слож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охране данных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девять местных самоуправлений, к которым относятся конфуцианские академии Совон, смогут подготовить основу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и получения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помимо вышеуказанных объектов, расположено около 30 конфуцианских академий, не вошедших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Подобные академии есть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К, в Кэсоне и Пхеньян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работает над проектом совместных с КНДР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отношении данных объектов.

Р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е FITUR в качестве «важного гостя»

Р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е FITUR,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янва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Мадриде. Об этом 19 сент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Эта выставка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крупнейших профи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ира наряду с ITB и WTM. В этом году в выставке FITUR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40 тыс. человек из 165 стран, име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а также 110 тыс. посетителей. РК первой из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иглашается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в качестве «важного гостя». Этот статус подразумевает активное рекламирование на местных площадка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нтентов приглашённой страны. Павильон РК займёт площадь 320 кв метров, что в шесть раз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RKI)

"Т-34" открыл Пхенья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ак передал корреспондент ТАСС в Пхеньяне Евгений Агашков, 20 сентября показом россий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ильма "Т-34" открылся семнадцатый Пхенья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Ж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в ближайшие семь дней с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десятки зарубежных картин из более чем 10 стран, а также новинки кинопроката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пхеньянском кинофорум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РФ, Белоруссия, Китай, Индия, Филиппины, Сирия, Куба, Германия, Италия, Польша, Монголия, Австралия, Канада и Ирланд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е жюр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Ф, Китая, Кубы и Швеции, возглавил член союза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 продюсерской компании "Детектив" Юрий Митюшин.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кинофестиваля проходила в Пхенья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оме кино,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на острове Янгакто посреди реки Тэдонган. Зал,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2 тыс. мест, был заполнен до отказа.

Показы фильмов в ближайшую неделю пройдут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Понхва" в центре Пхеньяна, а также в крупных кинотеатрах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толицы республики. Кинематограф КНДР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на фестивал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артиной "Широкий колокольчик"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м фильмом "Наши дети сменяются и поют от счастья". Среди работ российских



режиссеров, которые увидят корейские зрители, - боевик "Балканский рубеж", драма "Я - учитель", а также комедии "Миллиард", "Напарник" и "Джунгли".

Пхенья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с 1987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жнего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Ира. На первых смотрах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сь картины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из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жи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пользуются фильмы из России и Китая.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имают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имеют сво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Пхеньяне.

(ТАСС, 21 сентября)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зличия и сходства

Ким Герман,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 32, 34, 36, 37)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к материковские так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избежали судьбы диаспорных сообществ, теряющий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в добровольно-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форме св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язык и переходят на язык доминирующей этнической среды.

На гребне горбачевской триады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и поднявшейся волны «этнического ренессанса», корей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ак и все другие этнические группы и диаспоры, проявили живой интерес к своему забытому родному языку.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ССР с Южной Кореей, а после его распада стран СНГ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заново наладилась система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тавшим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На корейских отделениях вузов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и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во всех сувер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ах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бучают сеульскому литературному стандартному языку.

Диаспор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лит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последнего Генсека КПСС Михаила Горбачев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ерестройка, гласность и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позволила создав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этническому признаку. В итоге повсеместно стали возникать диаспорные ассоциац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Это было связано напрямую с первичными уставными задачами эт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зрождение народных обрядов, традиций, обычаев и реанимация полумертвых «родных» языков. Все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создавались по одним и тем же стандартным лекалам и прошли схожие пути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Схожими оказались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они столкнулись, совершались одни и те же ошибки, повсеместно возникли аналогичные противоречия среди руководства, и реальные достижения и результаты не особо отличались друг от друга.

Со временем появились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по возрастным группам: обществ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орёноин, Ноидан, Ноинхва и пр.), молодежные клубы и центры; по гендерному принципу – женские клуб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общества: к примеру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а (АНТОК, КАХАК, ТИНБО), офицерские клубы, ассоциации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и т.д. Объединяться стали по общим интересам и хобби: шахматные клубы, певческие хоры, танцевальные ансамбли.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льше всего возникло кружков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екоторые объединения были инициированы и получили материально-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от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

ны, причем первоначально из двух стран: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история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АСК (Всесоюзной ассоци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пр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АСОК (Ассоциация содействия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Пр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и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и учреждены «Общества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и», отделени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секции тэквондо, группы самульнори и т.п.

На Сахалине,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образовались гражданские инициативные группы и общества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гражданства и репатриации, например, «Обла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ОСК) и т.п.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ктивную роль сыгра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ого не отмечена в регионах проживания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вязи с резким ростом числ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зник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шения острых проблем, возникших с их прибыт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елегировало часть своих полномочий по адаптаци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м НПО, финансируя 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давно появилась перв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нсан), и она делает свои первые шаг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щение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исходит по большей части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и самой крупной по числу группу – «82-е авеню» - наши в Корее» входят (по данным на 07.08.2019) 106.815 участников.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что основная масса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пребыва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Корее, и доля тех, кто вошел в нее, находясь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или не относится к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остается пока неопределенной.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озникла целая сеть групп с определением «русскоязычный» и названием города: русскоязычный Ансан, Инчхон, Кванджу, Сеул, Пусан и т.д. Контент этих сообществ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 в темах и касается в основном коммерции, рекламы и объявлений, вопросов и ответов быт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Общение в среде сахалинцев-репатриантов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информантов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о, так как все они в преклонном возрасте, многие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ы в передвижени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ют «Дом молодежи»

Н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творческих островитян, начинающ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за счет областных средств выкупят здание и проведут в нём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зампред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выступая на отчет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ежи».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нам создать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лощадку для молодых творческих ребят, на которой они могли бы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проекты.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решение, поскольку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От успехов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зависит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мы обязаны помочь им в своих начинаниях,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умов.

Сейчас остров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рорабатывает вопрос о покупке здания,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на Дзержинского, 21. Здесь разместят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г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семинары и массовые слеты.

Так, «Дом молодежи» станет резиденци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форума «Таврида». Это твор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ит в Крыму и собирает тысяч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 августе на нем побывал Сергей Наумов и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филиал «Тавриды» на Сахалине. Инициативу одобр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форум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Ф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Причем островная резиденция станет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молодежи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нцепция филиала «Тавриды» будет прорабатываться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а после – обсуждаться с сахалинс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Дом Молодежи»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езиденция «Тавриды» откроются на островах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десь сахалинская молодежь будет готовить творческие проекты, а лучшие предложения прозвучат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форуме в Крыму. Например,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итяне выиграли гранты на проведение фестиваля и развитие город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десятом «Кроссе нации»

21 сентябр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га отметил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амый массовый «Кросс нации»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субботним утром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на старт вышли почти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опреки прогнозам синоптиков солнечная погода благоволила всем любителям легкой атлетики. От имени руководства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ов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Он и сам покорил дистанцию в 4 километра на юбилейном, десятом, «Кроссе нации».

– Друзья, я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этим праздником спорта. Каждый год «Кросс нации» бьет рекорд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наши острова выбираю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И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то занимает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становилось все больше. Призываю всех поддерживать активность, потому что за этим будущее, – сказал Антон Зайцев.

Перед забегом его участники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Татьяны Быковой – одной из родоначальниц островного «Кросса нации», которая недавно ушла из жизни.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ись забеги для дошколят. У каждого маленького атлета на груди был первый номер – знак того, что все вышедшие на дистанцию 500 метров уже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К массовому забег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и спортсмены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Они прошли дистанцию на колясках, а на финише зрители встретили их громки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 На «Кросс нации» меня позвал тренер, и я не мог не прийти. Спорт для меня – хобби, я постоянно тренируюсь. Это отличный способ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 поделился Владислав Данилевский.

Испытали свои силы в «Кроссе нации» также ветераны спорта. Николаю У – 66 лет, коренной сахалинец своей жизни без движения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

– Прежде всего, спорт дает здоровье. Я и на лыжах катаюсь, и на тренажерах занимаюсь. Благо,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се условия. Ну и, конечно, каждый год выхожу на старт «Кросса нации», –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ем секрете молодости Николай У.

В юбилейном забеге на дистанции 1 километр среди мальчиков и девочек лидировали Софья Ульяницкая и Даниил Калашников.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этом же отрезке победили Елена Сибилева и Алина Барашева, а также Андрей Семикрас и Денис Дорофеев.

В беге на 4 километра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в возрасте до 20 лет пальма первенства у Романа Трубецкого, Валентины Перелыгиной, Никиты Бородина и Марии Муратовой. На 6-километровой дистанции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ст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реева. Медаль высшей пробы в забеге на 8 километров завоевали Кирилл Кичигин и Елена Железняк.

Главную дистанцию «Кросса нации-2019» – забег на 12 километров – выиграл Олег Сергеев. В копилке спортсмена уже есть медали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 Бег сегодня удался, не было установки сразу со старта идти,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во все ног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по ходу дистанции наверстать упущенное и выиграть, – поделился тактическими нюансами чемпион.

Отдельную «Зеленую дистанцию»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4 километра для любителей физ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одготовил цифровой партнер мероприятия – компания «МегаФон». Участники этого забега получили специальные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Главный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России выступает на Сахалине

С 20 по 28 сентябр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оенно-музык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Спаская башня на Сахалине». Гвоздь программы – Центральный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стиваль стартовал большим концертом на сцене кинотеатра «Октябр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дущий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России порадовал зрителей программой, посвященной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 Визиты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лав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и – многолетняя традиция, которая берет начало в 2009 году. Оркестр успел обрести на островах тысячи поклонников.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и нынешний концер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с аншлагом,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Место за дирижерским пультом занимали начальник оркестра,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полковник Сергей Дурыгин, начальник военно-оркестров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главный военный дирижер,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генерал-майор Тимофей Маякин и дирижер оркестра, подполковник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Всенародно любимые композиции исполняли лауреаты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 Наталия Манулик, Светлана Ильина, Николай Рябуха, Федор Рытиков,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на остров вместе с оркестром. Также на сцену вышли со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 Ярославна Калашникова и Павел Алдаков, артисты камерного хора El Canto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авла Гололобова.

– Мы очень признательны сахалинским зрителям, – сказал после концерта начальник оркестра Сергей Дурыгин. – Когда артист встречает столь теплый прием, он тоже выступает с полной самоотдачей. Надеюсь, что наш фестиваль затронет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струны душ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собенно молодежи.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музыка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Центральный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с 21 по 26 сентября посетил Ноглики, Оху, Тымовское,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Смирный и Поронайск. Кроме того, во время фестиваля «Спаская башня на Сахалине» оркес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21 и 22 сентября побывали в Углегорске и Шахтерске. Еще одним гостем музыка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стал оркестр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Армения. 24 и 25 сентября музыканты совершили поездку на Курилы, а 28 сентября выступа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ый област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 в рюкзаке»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Площадкой для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 Томаринский район.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 в рюкзаке» объединил два популяр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туризм и экстремальный спорт.

–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ого формата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и спорта не только в нашем районе, но и в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Уверена, «Остров в рюкзаке»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и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визитных карточек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 отмети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мэра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Елена Клепикова.

Действие фестиваля развернулось на семи площадках: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основ выживания, велозэкстрима, стрельбы из лука, цигун-медитации и детской.

На каждой из них для гостей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интерес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пример, на площадке по основам туризма всех желающих обучали вязать узлы,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местности и проходить полосу препятствий.

Как развести костер во время дождя, добыть еду, набрать и вскипятить воду без посуды, что делать при встрече с медведем рассказали участникам фестиваля на ста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основам выживания. На площадке цигун-медитации томаринцев обучили методикам снятия стресс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ции стрельбы из лу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КоЛ»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каждый мог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новом виде спорта.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ась зон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сахалинским клубом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велоспорта. Ребята здесь показывали трюки, учили гостей азам маунтинбайка и проводили велоконкурсы. На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выступа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 Получился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раздник. Лучший показатель этого – радостные улыбки на лицах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Экстремальный спорт, активный отдых и туризм тесно связаны. Поэтому фестиваль вышел довольно гармоничным. Надеемся увидить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 мероприятия Игорь Балла.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областном фестивале «Остров в рюкзаке» приняли более 250 человек.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ежегодным.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отменены платные услуг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услугами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е обращаются в онкодиспансер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врача.

– Онк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 учреждение,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е самой передовой техникой и в достаточном объеме. Убежден, оборудование должно работать н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ем более, речь идет об онкологии, когда время – это самый ценный ресурс. От скорости и качества диагностики зависит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зменение коснулось всех видов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процедур, в том числ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 МРТ и КТ, на которые пациент обращается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лечащего врача.

– На платной основе в учреждении останутся услуг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для пациентов, обращающихся в рамках доброво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Напомним, в август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островитян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будут лечить московские онкологи. Об этом договорились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онкологии имени Н.Н.Блохина Иван Стилиди. Осенью сотрудники клиники прилетят на Сахалин. Они обучат островных врачей современным подходам в лечении рака.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стили проект, не имеющий аналогов в России – скрининг легких методом низкодозовой томографии. Также на островах увеличили планируемый охват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бесплат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 с 200 тысяч до 3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а мера поможет выявить онкозаболевания на начальных стадиях. А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планируют внедрить новые методы диагностики. Они позволят сократить срок постановки диагноза до 10-12 дней.

На площад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стоялся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й форум нефтегаз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нефтедобывающих компаний мира и Росси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Эксперты обсуд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фор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обществом –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мессенджеры, Интернет-СМ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 Мир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ется и нам важно успевать за ним. А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объединяться и работать сообща.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й форум нефтегаза» – один из способов стать ближе друг к другу, – отмети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коммуникаций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Ирина Есипова.

Ирина Есипов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ую площадку.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Оксана Семен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региона всегда открыто для диалога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Львиная доля денеж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в островной бюджет формируется за счет добычи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развитии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регионе. Многи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трудятся в этой сфере, в ней рождаются инновации. Добыча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стала настоящим драйвером нашей экономики. Спасибо, что организовали этот интересный форум. Мы надеемся, он поможет бизнесу и власти наладить тесный контакт, – отметила Оксана Семенова.

В ходе разговора эксперты озвучили глав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влияния СМИ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Организации участвуют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акциях и реализу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о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боты, используют цифровые средства коммуникации – каналы в мессенджерах, групп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страницы онлайн-журналистов. Теперь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донос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себе, но и мгновенно получать от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Для островитян та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е менее важно – они должны виде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которые открываются перед регионом за счет добычи нефти и газа.

Эксперты высказали желание посетить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й форум,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еще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상구 제18차 세계한상대회장, 글로벌한상드림 1억 원 기부 한상의 나눔 DNA 우리에게도 있어... 25일세계한상대회 최종보고회-외교센터, '글로벌한상드림' 기부금 전달식 진행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고상구 대회장이 25일(수) '글로벌한상드림'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밝혔다.

한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시작된 글로벌 한상드림은 모국의 차세대 인재육성과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90여 명의 국내 차세대 인재에게 1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우리 한상의 경영철학에 담겨있는 나눔 DNA가 차세대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한상이 사회공헌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고상구 대회장(K&K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은 베트남 최대 한국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을 운영하며 한상기업 최초로 베트남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전체면적



2ha 규모 복합물류센터 준공과 함께 한국 농식품 시장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글로벌한상드림은 초대 임원들의 3년 임기를 마치고, 신임 이사장과 임원 선출하는 이사회와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역 전라남도·여수 지역 학생들에게 한상장학금을 전달예정이다.

- 총회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9시
- 장학금 전달식 : 2019년 10월 24일(목)

(재외동포재단 제공)

2019년 제 21회

북방동포대상 체험수기 공모

동포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2019 제21회 북방동포대상 체험수기' 공모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분야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과 전통문화계승, 그리고 한류 체험담에 관한 내용

작품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A4 3~10장) 내외

원고접수
2019. 7.29(월) ~ 9.30(월)까지

작품심사
2019. 10.03(목) ~ 10.10(목)

수상작 발표
2019. 10.14(월) *개별통지

심사기준
작품 : 주제식과 진솔한 우리말 표현
지도교원상, 단체상 : 참여도 및 수상작품배출 여부 등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국방송 한민족방송 (우) 07235
"제21회 북방동포대상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 Email: 972khz@kbs.co.kr

시상내역 (총 19명 / 상금 총580만원)

청소년부문

- 1) 대상(1명): 상금 50만원 및 상패
- 2) 우수상(2명): 상금 각 30만원 및 상패
- 3) 장려상(3명): 상금 각 20만원 및 상패

성인부문

- 1) 대상(1명): 상금 70만원 및 상패
- 2) 우수상(7명): 상금 각 30만원 및 상패
- 3) 지도교원상(3명): 상금 각 20만원 및 상패

단체상 조선족학교(대표 1명)

: 상금 70만원 및 상패

공로상 방송국(대표 1명): 공로패

시상일정 및 장소

2019년 11월 23일 (토), 서울시 구로구 구민회관 대강당

*수상자는 한국 방문 및 시상식 참여 (상패 및 상금 전달, 한국 왕복항공권 및 소정의 체류비 지원, 청소년은 보호자 1인 포함)

Губернатор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дверь в театр живых традиций народа» "전통에서 생의 기를 찾으며"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2 октября 2019 г. 14:00–16:00

Адрес: пр. Мира, 83 а,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актовый зал)

В программу вход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 роспись на карточках: каллиграфия,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 роспись вееров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орейских масок тхаль;
- блюда из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и ханджи;
- значки из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и ханджи;
- изготовление открыток из бумаги;
- флаг тхэгыкки своими руками;
- роспись по ткани;
-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нструменты;
-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Контактный адрес: sakhalin_k-pop@mail.ru.
Телефон. 42-40-87

Праздничная торговля: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сладости тток, кимбап, чумоклап, браслеты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узорами и др.

К★POP ФЕСТИВАЛЬ 2019

11 октября 2019 г.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18: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33 (2-й этаж, большой зал)

Отборочный тур: 11 октября в 13:00–15:00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33)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5 сентября по адресу: sakhalin_k-pop@mail.ru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Партнёры: Молодёжная ассоциация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동북아청소년협의회

Организаторы: [Logos of organizing institutions]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Школьники от 8 до 14 лет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 задания из 10 вопросов, посвященных спорту.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ребят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могут детские библиотеки, школы и спортив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редством 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ноября.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награждаются именными дипломами и подарком от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ргкомитета. Подробност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8(4242) 23-27-90.

Имена тех ребят, чьи работы будут признаны конкурсным жюри лучшими,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уже 27 но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주민을 기다리는 제3회 러·일 재즈 축제

<사할린-홋카이도 재즈>러일 재즈 축제가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옥차브리> 영화관 콘서트홀 무대에 이고리 부트만과 모스크바 재즈악단, 다닐 크라메르 트리오, 일본 교토 재즈악단과 '폭스 캡처 플랜'이 출연한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콘서트와 함께 음악인과의 만남, 활동교실도 계획되어 있다.

모스크바 재즈밴드는 러시아 국민 음악가 이고리 부트만이 이끄는 전설적인 악단으로서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악단의 역사를 기념해 세계적인 찬란한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

러시아 국민 음악가 다닐 크라메르는 러시아 재즈의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 그는 연주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적 피아니스트, 노련한 편곡자, 작곡의 거성, 유능한 교육자, 방송인, 사회 활동가로서의 재능을 겸비했다.

일본의 '폭스 캡처 플랜' 밴드는 2011년에 결성되었고 포르테피아노3인조는 현대 재즈록을 주된 내용으로 연주한다. 이 밴드가 발간한 6개 앨범은 재즈 부문 디스크숍 그랜드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 이 앨범 중 1개는 2013년 일본 재즈 어워드 '새로운 스타' 부문에서 수상, 2015년 '올해의 앨범' 부문에서도 상을 거머쥐었다. '교토 재즈 매시브' 밴드는 전자 스타일과 크로스오버 재즈를 전문으로 하는 슈아와 요시히로 오키노 형제가 구성한 일본의 인기 프로젝트이다. 이 그룹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많은 행사와 쇼를 개최했다.

<사할린-홋카이도>재즈 축제는 러일 간 상호호환관계와 문화 교류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계의 독특한 행사이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의 문화 생활에 재즈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로서 매해 재즈 축제에 거성의 연주자들과 세계적인 재즈 음악인들을 사할린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러일 재즈 축제 <사할린- 홋카이도 재즈>는 2017년부터 사할린에서 개최되었다고 주 문화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ев ждёт третий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джаза

15 и 16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третий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 — Хоккайдо Jazz". На сцене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Октябрь" выступят Игорь Бутман и Московский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трио Даниила Крамера и коллективы из Японии — Kyoto Jazz Massive и Fox Capture Plan. Помимо концертов,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запланирова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с музыкантами.

Московский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 легендарный коллектив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народного артиста России Игоря Бутмана в 2019 году празднует свое 20-летие. За свою историю оркестр выступил на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концертных площадках мира.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Даниил Крамер — уникальная фигура российского джаза. Он сочетает в своем творчестве дар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ианиста, опытного аранжировщика, яр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талантливого педагога, телеведуще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еятеля.

Коллектив из Японии Fox Capture Plan был создан в 2011 году. Фортепианное трио, основанное на концепц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джазового рока.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альбомов группы были дважды удостоены награды CD Shop Grand Prize Jazz Category. Так же один из альбомов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премии Jazz Japan Award 2013 в категории "Новая звезда", а в 2015-м — как "Альбом года".

Kyoto Jazz Massive — популярный японский музыкальный проект, состоящий из двух братьев Шуя и Йошихиро Окино,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йся на кроссоверном джазе и электронном стиле. Группа провела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и шоу как в Японии, так и за пределами страны.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 — Хоккайдо Jazz" — уникальное событие в мире музыки,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расшир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и дружеск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ероприятие является статусным джазовым событием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ждый год фестиваль привлекает на остров исполнителей первой величины, а также мировых звезд джазовой музык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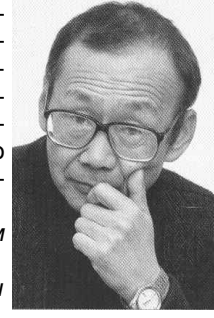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 — Хоккайдо Jazz" проводи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 2017 года,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ем великолепного фотолетописца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астера черно-белой фотографии, нашего дорогого Михаила Львовича, с 70-летием!

*Ваш юбилей – совсем не много,
Но годы прожиты не зря.
Большая пройдена дорога,
Большие сделаны дела.
Пусть юбилейная сегодняшняя дата
В душе оставит добрый след,
Желаем мы всего, чем жизнь богата: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мира, долгих лет.*

Ваши коллеги по редакции
존경하는 이예식 기자님!
고희(70세)를 축하드리며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하며 손자녀들의 사랑속에 행복한 여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고려신문사 동료들



День рождения
*О разве день рождения повторяется?
Он длится в сказочном воображении,
в беспмятстве, когда я еще не выплыл
из мира трав, рыб, птиц, звезд
и бормотал неведомо о чем...*

Роман Хе

От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поэта Романа Хе с 70-летним юбилеем!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дарите солнечные зайчики счастья, нежную лирическую поэзию и неповторимую музыку души.

Коллектив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고희(70세)를 맞으신 허남영 시인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수무강하시며 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Заказывай еду онлайн



eda.sakh.com

реклама



ООО "Сах.ком", ОГРН 1046500642264,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트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